

PET칩 공급과잉 “초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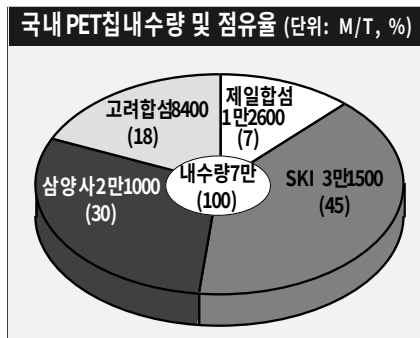
생수시판 허용으로 고상중합 증설경쟁 ... 일산 670톤의 60% 수출

PET병 원료(Chip) 생산시설인 고상중합설비 증설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하반기 이후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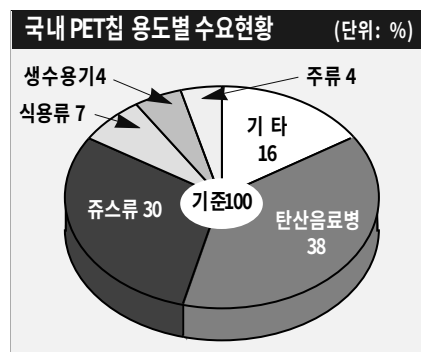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 하반기 생수시판을 허용함에 따라 Chip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삼양사 등 관련기업들이 고상중합시설을 증설하고 있어,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는 동남아 등에서의 꾸준한 수요신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확실한 수요 증가요인이 없어 증설을 보류해 왔으나 최근 정부가 생수시판을 허용함에 따라 수요신장이 예상되고, 수출증가도 확실시됨에 따라 활발히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출중 60%를 점유하고 있는 유럽지역 수출이 오는 7월부터 GSP특혜가 철폐됨에 따라 업계는 톤당 최소 100달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 등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선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 ()안은 증감률임.



국내 고상중합설비 현황을 보면, SKI가 일산 18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SKI는 92년 기존의 Bach방식에서 연속중합방식으로 시설을 변경, 최고 200톤까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SKI는 축적된 기술을 이용, Plant수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양사는 현재 일산 70톤에서 오는 9월 50톤을 증설, 일산 12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삼양사는 자체 수요량이 월 500~600톤으로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 월 700~800톤, 수출 월 1000여톤을 판매하고 있는데 향후 수출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려합섬이 93년5월 일산 50톤을 증설, 일산 90톤에서 오는 6월에 30톤을 증설할 예정이며 제일합섬도 현재 40톤에서 하반기에 40~50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Chip공급은 현재 520톤에서 오는 하반기에는 670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칩수요는 93년 6만5000톤에서 94년에는 7만톤이 예상되고 있어 생산량의 60%를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Chip의 부문별 수요는 탄산음료병이 35%, 주스류 30%, 식용유 7%, 생수용 5%, 소주병 등 주류가 4%, 기타부문이 19%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생수용에서 최고 30%의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칩 시장점유율은 SKI 45%, 삼양사 30%, 제일합섬 7%, 고려합섬 1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거래가격은 고려합섬과 삼양사 등의 시장참여로 가격이 크게 하락, 현재는 톤당 1200달러에 수출가는 103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 수출가격은 20~30%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